



오인회 소식

2018년 4월 (제79호)

권두언 (卷頭言)

성경이나 금강경에는 진리가 없다

성경이나 불경에는 진리가 없다.
'부처' 나 '예수' 가 한
그 많은 일들도 본성이 아니다.
본성은 그 많은 일을 하는 것을
드러나게 할 뿐이다

그래서 '내가 한다' 라고 할 것이 없다.
'나의 본성으로
무엇을 한다' 라고 한다면
조심해야한다.
그릇된 길로 갈수있으니……

- 超顯 -

*** 홀로스 공동체 후원 현황 ***

홀로스 공동체의 다양한 활동들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후원해주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홀로스 운영 후원 내역

○ 일반후원

4월 9일 류창형 3만원/ 4월10일 권오인 20만원 / 4월 10일 선호 1만원 / 4월 20일 여행 1만원/
4월 27일 장경옥 10만원

● 공동체학교 후원 내역

○ 일반후원 (기보 100만원/ 연주 60만원, 바람 300만원, 지원 100만원, 자명 160만원)

○ 월정기후원 (매월 20만원 2년간/ 별칭 뒤에 숫자는 월 후원 횟수 입니다)

- 일반 (익명1/24, 익명2/24, 능주18, 솔내음15, 무유16, 고을16, 서원15, 여몽16, 원님16, 기보16, 씨이13, 허유14, 거위14)
- 기타 (가온17, 구당16, 자현16)

<공동체학교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2-135-404042 이원규 / 문의 : 02-747-2261 (신현이)

● 번뇌즉보리 총서 후원 안내

번뇌즉보리 총서 2권이 준비 중입니다. (대승기신론上 출판 완료, 中 출판비 : 450만원/ 현재 후원액 3,669,951원 (上출판 이월금 215,451원, 능주40만원, 우현 254,500원, 기보 100만원, 금산스님 50만원, 나무 30만원, 고을 100만원)

<번뇌즉보리 총서 후원계좌> 농협 351-0680-1315-13 이원규 / 문의 : 02-747-2261 (신현이)





개인을 위한 것이 곧 전체를 위한 것이 되도록...

솔내음 인터뷰 2

솔내음님은 20대부터 자신의 강도높은 '분노'에 대한 궁금증으로 마음공부자리를 많이 찾아다녔습니다. 명상/참선/위빠사나/아빠타코스/에니어그램/꿈분석/간화선/인도 마두반에 있는 영성대학교, 브라마쿠마리스 라자요가 기초·중급과정 명상/깨어있기/통찰력게임... 등등. 그리고 화요오인회와 수요일오인회에 참석하면서 한 주간의 주제를 품기에서 점점 분명해졌다고 합니다. 실시간 마음작용을 볼 수 있고 크게 걸림없는 일상, 감사가 많아졌습니다. 토종씨앗(농업)/천연발효의 세계(음식)/교육을 나란한 자리, 세 축을 중심으로 살고자 합니다. 지금은 충북 단양군 도담삼봉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당장 이 세상 소풍길 마치더라도 큰 아쉬움이 없기를...' 내가 품고 사는 기도다.♡

허: 예전에는 일상생활에서 화를 불같이 많이 냈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어떠세요?

솔: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10이 최대치라면, 제가 한번 화를 내면 거의 8~9, 9.5까지 엄청나게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그러진 않아요.

허: 지금은 어느 정도인가요?

솔: 확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방금 말씀드린 '이거 왜?' '뭐가 기준이야?' '어째서 된 거야?' 하고 잠깐 멈춰보면 그렇게 화낼 게 없을 만큼 답이 찾아져요.

허: 어떻게 찾는지요?

솔: 예를 들어 남편이 2001년에 천안으로 이사가면서 담배를 끊었는데, 2017년 지난 겨울부터 거의 18년 만에 담배를 다시 피웁니다. 그 이유가 지금 굉장한 격변기이고 이런 저런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서 일시적으로 피운다고 해요. 참 싫은데, 저거 습관이 되면 안 되는데, 하는 염려 때문에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도 제가 느끼기에는 이미 습관이 된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문제로 가만히 생각했어요. 화를 내고, 왜 피우냐고 대립하려다가 가만히 생각하니, '피우든 안 피우든 본인의 선택이다, 내가 아무리 싫다고 하고, 경기를 일으켜봤자, 직접 풀어야지 내가 하는 게 아닌 걸, 싸워봤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이렇게 내적으로 중얼중얼 이야기하고 나니까 겉으로는 그냥 부드럽게 나와요. "난 안 피우면 좋겠어요. 언제 그만 하려고 해요? 냄새가 좀 독하거든요?" 이 정도로 그냥 넘어가는 것. 그래서 이제 그 남편이 담배피우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불편함이 없어요.

허: 그렇게 불편한 게 없어진 이유가 남편을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셔서 그런 건가요?

솔: 이해하려는 마음이라기보다는 '내가 왜 그렇게 싫어하지? 이게 왜 싫지?'라고 저한테 먼저 물어요. 물으면 몇 가지 원인이 있어요. 건강 등등. 그것을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하겠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거니까 맡기자. 그리고 기도하자. 부드럽게 저 분이 진짜 빨리 그만두도록 마음만 쓰자. 이렇게 가는 거죠.

허: 남편한테 왜 담배를 피게 되는지 심리적인 상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시진 않으셨어요?

솔: 물어보면 이야기해요. 지금 물리적으로 굉장히 많은 일을 했었고 금전적으로 터무니없는데 진행해야했고 굉장히 뭔가 많이 짓눌리는 상황이에요. 조바심도 많고, 털어버리고자 하는 욕구, 핑계, 그 가운데 있었던 거라고 해요.

허: 남편분이 하는 사업이 어려움이 있어서 심신이 눌린 상황이셨나봐요. 평소에 부부 사이에 대

화를 많이 하시는 편이세요?

솔: 많이 하죠. 요즘은 덜 하는 편이지만, 산책하는 동안 두 세시간씩, 내외지간에도 일주일에 한 번내지 두 번, 두세 시간 충분히 이야기하면 문제될게 하나도 없다. 다 해결된다고 봐요.

허 :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솔 : 지금은 그렇게 길게는 못하고, 한참 사업 열심히 할 때,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될 때가 그런 상황이었어요. 저녁마다 월 2회 두 시간 안팎 산책하는 시간에, 회사든 모든 일을 다 이야기했죠. 엉뚱하게 알고 있고, 잘못 알고 있고, 모르고 있고, 이게 얽혀가지고 막 잘못되는 상황이 다 파악되더라고요.

둘이 같이 현장에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집안일도 같이, 회사일도 같이 하는데 소통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야기만 하면 다 되는데, 어쩌다 또 시간을 놓치면 분명히 문제가 생겨요. 일로도 문제가 생기고, 집에서 불화가 생기고.

허 : 일을 같이 하시니까 어쨌든 대화를 하면서 오해를 풀었다는 거네요.

솔 : 오해라기보다 소통을 했죠. 실시간 소통을 했죠. 업무소통이든 집안일 소통이든. 공유가 되면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허 : 그런데 요즘에는 남편분 혼자 일을 하시는군요.

솔 : 아니요. 아들 하는 일에 아버지가 지원을 하고, 저는 살림집을 옮겨와서 1층이 사업장, 2층이 살림집. 그래서 시간을 엄청 쪼개서 쓰는데 저는 아들 사업장에서는 일 안하겠다고 선언했고, 남편은 아들하고 파트너로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허 : 어떤 일을 하시나요?

솔 : 두부전문점. 두부를 직접 만들고, 그 만든 두부로 조리해서 식사 메뉴를 내는 식당이에요.

허 : 그런데 남편분은 어떤 게 힘든 건가요?

솔 : 사업장을 옮겼거든요. 조그마한 공간에서 넓은 공간에서. 그래서 환경조성, 금전적인 투입, 해결, 이런 것들을 다 총괄하다보니 굉장히 골머리를 썼죠. 한 몇 개월.

허 : 지금은 어느 정도 해결된 상태인가요?

솔 : 진행 중이에요. 옮겨온 지 두달 반 넘었고요. 시설도 확장해서 이전을 했기 때문에 이제 진행 중인 거죠. 마무리를 해야 하고 매듭을 지어야 하고, 그러려면 사업장이 활발해야 하고, 아들은 서른이니까 총괄적인 것은 아버지가 진행한다고 봐야죠.

허 : 그러면 지금 솔내음 님이 화라든지 일상에서 느끼는 짓눌리는 감정이라든지,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이 많이 부드러워지고 편해지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남편분이 일시적으로 사업문제 때문에 신경쓸 게 많아서 담배를 다시 피고 계시면 남편분에게 조언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한번 살펴봐라, 이런 이야기는 안하시나요? 어떠세요?

솔 : 그렇게 제안은 안 해도 음식이나 내가 걱정하는 부분들을 부드럽고 순하게, 때를 봐서 슬쩍슬쩍 이야기하죠. 그럼 아세요. 맡겨두라고. 시간이 되면 본인이 스스로 끊겠다고.

허 : 그러면 그것 때문에 크게 문제되는 건 아니군요.

솔 : 네, 그것도 그냥 편안해요.

허 : 남편분은 마음을 살피는 공부에는 크게 관심 없으신가요?

솔: 관심 없으세요. 옛날에 제가 등록비내고 다니면 옆에서 이렇게 말해요. “아니, 왜 돈을 내고 그런 걸 하러다녀. 그냥 되는 거지, 그게 왜 배워서 돼?” 이렇게 놀려요.

남편은 머리형이라 분석적이고 이성적이고, 저는 가슴형이라 감정적으로 늘 휘둘린다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는데, 요즘 제 느낌은, 그래도 그 동안 나를 집중했던 결과치와, 남편이 배움을 백안시 하고 '그걸 왜 해, 그냥 되는 거지' 하고 놀렸던 것이, 내공이라고 할까, 속심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고 느껴요.

허: 어떤 점에서 그런 차이를 느끼세요?

솔: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남편은 이성적으로 현실적으로 상황에 대한 셈, 계산이 잦대가 돼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파악하고 적응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게 원활해요. 저는 그런 부분이 무디지만, 똑같은 상황에서도 직관으로 문제의식을 느끼는 것은 제가 더 빠르거나 정확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남편이 인정을 하죠.

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해보자면..

솔: 예를 들면 지금 사업장을 옮겨와서 이래저래 진행되고 있는데, 남편은 사업적 마인드가 강하니까 매사를 펼치고 확장하고 돈을 벌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가기에 거의 집중해요. 시설부터 메뉴개발 등등. 공학도라서 음식은 하나도 몰라요. 그렇게 펼칠 때 저는 옆에서 가만히 보다가, 음식 관점에서 또는 전체를 위해서, 우리가 음식을 파는 사람이지만, 먹는 사람과 파는 사람, 양쪽 다를 위해서 이걸 맞고 이걸 아니다 라고 생각되는 지점이 있으면, 단호하게 목소리를 내요. 그래서 조목조목, 이걸 이거고 저걸 저거고 이렇게 제안해서 그네들의 계획을 제가 접게 하죠.

허: 이야기하시는 게 반영되나 보죠?

솔: 그렇죠. 메뉴를 정할 때도 이거는 왜 안 되는지에 대해 조목조목 대면, 처음엔 답답해하다가 이제는 반영해요. 순기능이 있어요. 상호간에.

허: 서로의 역할이 보완적으로 된다는 거군요. 남편분은 사업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매출을 많이 올려서 이윤을 낼 것인지에 포커스를 맞추고, 솔내음 님은 식당이라는 게 손님들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닌가, 음식도 맛있어야 한다는 관점이고요.

솔: 함께. 우리도 좋고, 오는 사람들도 좋은 음식 먹도록 하자는 것이지요.

허: 그게 사실은 맞는 방향인 것 같은데, 그걸 남편분이나 아드님도 이제 이해하신다는 거죠?

솔: 서른이 된 아들이 엄마를 답답하다고, 외골수라고, 엄마처럼 하면 세상에 먹을 것 없다고 덤뻐버렸거든요. 처음에는 과심하다고 이렇게 반응하다가 이제 한 템포 늦춰요. 말로 안하고 가족 단체 카톡방에다가 간결하게 글로 정리를 해요. 그러면 그게 오히려 먹히더라고요.

허: 어떤 식으로 정리하세요?

솔: 예를 들면 지금 사업장에 큰 간판으로, 음식이 만들어진 이력이나 식재료 등을 살핀다는 뜻에서 '음식시민'이라고 해놨어요. 간판에다가 젊은 주인장 얼굴을 크게 찍어서 음식시민을 강조해서 올린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음식도 음식시민의 개념과 걸맞아야 한다, 그 이유가 뭔지 구체적으로 글로 풀어주면 훨씬 더 부드럽게 소통이 되는 것 같아요. 예민할 때는 입을 다물고 글로 가요.

참고로 '음식시민'은 슬로우푸드협회의 김종득 회장이 쓰는 용어인데, 시민은 문맹자가 아니라 음식의 식재료 이력, 만드는 과정, 생산유통 등을 다 살펴서 볼 줄 아는 사람을 말해요. 반대로 싸고 맛있고 빠르고 쉽고 이런 것만 즐겨찾는 분들은 음식문맹이라고 이야기해요. 요즘 사실 대부분이 음식 문맹이죠. 우리식당 같으면 산분해간장 대신에 진짜 발효 집간장을 쓰고, GMO콩 말고 지역콩을 쓴다, 이렇게 짚어서 말하는 거죠 실제로.

허: 그걸 식당 안에 잘 보이는 데에 설명해놓으셨다는 건가요?

솔: 설명은 안 해놓고, 앞에 간판에 걸어놨고, 우리 서른살 청년한테 그 얘기를 끊임없이 하는 거

쥬. 네가 가야 할 방향과 철학을 깨면 안 돼. 이런 쪽으로.

허 : 아드님이 이해하시는 편인가요?

솔 : 엄마를 거의 문화재취급해요. 되게 별난 엄마. 엄마처럼 하면 이 세상에 먹을 것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도 제가 다행스러운 것은 그래도 조미료를 쓰지 않고, 자연육수를 내서 쓰고, 직접 항아리에서 담은 집간장을 쓰죠. 식당에서 이것만도 대단한 거거든요. 그걸 해요, 우리집에서는. 우리 아들이. 그것만 해도 고맙죠.

허 : 주로 상대하는 분들이 가족분들과 손님분들인가요?

솔 : 저는 식구들과는 잠잘 시간 만나고, 그 외에는 제 개인적으로 강의를 하거나... ‘천연 발효의 세계’라고 해서 설탕을 쓰지 않고 유기농 곡물로 음료, 술, 식초, 장아찌, 장, 그리고 차, 찌고 말리고 말리는 숙차, 발효라고 이름지어진 모든 갈래는 제가 안내, 자문을 하죠.

허 : 평소에 그쪽 전공을 하셨나요? 아니면 혼자서 공부를 하셨나요?

솔 : 전공은 아니고요. 그 계기가 미내사예요. 제가 사업하면서 머리가 너무 아플 때, 미내사 북카페에서 ‘평화가 깃든 밥상’ 요리 공부를 하면서 그때 발효를 알게 되어서 나중에 제 개인적으로 따로 3년간 사사받았어요. 항아리에서 미생물이 끓는 소리에 끌려서 따로 지리산자락에 계시는 한 선생님한테 5월 한 달씩 3년간 산에 가서 산야초 익히고 채취하는 것을 배웠어요. 그렇게 시작됐죠. 그래서 미내사가 각별해요.

허 : 그걸 발전시켜서 사업적으로 접목하셨군요.

솔 : 좋아하니까 길이 그렇게 열리더라고요. 평생교육사 2급을 땀어요. 강의하기 위해서요. 강의를 하는 데가 평생학습센터, 농업기술센터가 주류예요. 강의를 의뢰할 때 몇 가지 요건이 있는데 강의이력도 있지만,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땀 것도 도움이 됐죠.

허 : 강의하시거나 여러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예전의 감정적인 문제나 마음에서 일어나는 내용들이 전과 달라진 점이 있나요?

솔 : 20대에 교사를 했고, 고등학교 교사로 10년 있었어요. 제가 초등6년, 중고 6년 동안 장래희망이 한번도 변하지 않고 교사였어요. 되짚어보니까 제 안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거나 10년 고등학교 교사를 했고 40대 10년은 어린이도서연구회 강사를 했고, 그리고 남편의 회사일을 9년 하고, 지금도 강사를 하고 있어요. 가르치는 일은 신바람 나는 일이고 재미있는데, 큰 차이가 있다면 옛날에는 욕심을 내서 뭘 많이 가르쳐주고 시간을 들여서 많이 주고 싶어 했다면, 지금은 수강생들을 살펴봐요. 저 친구들이 다 감당을 하고 있는지, 해결이 되었는지, 또는 버거워가지고 헤매고 있는지, 이걸 살펴본다는 게 지금은 달라진 점이죠.

허 : 왜 그렇게 달라지신 것 같나요?

솔 : 전에는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게 최선이라고 믿었다면, 지금은 일방이 아니라 쌍방이 서로 유익한지를 보고, 아무리 많이 줘도 저쪽이 감당을 못하면 선이 아님을 알고 있어요. 늦추더라도, 욕심을 줄이더라도 상대도 같이 좋고 감당되는지까지 살펴보게 된 거죠.

허 : 그러면 지금은 가정생활이나 외부 강의, 사람들과 만남에 있어서 불편하거나 어려운 점이 있으세요?

솔 : 아주 지극히 감사해요. 요즘은 정말 많은 감사가 일고, 농담처럼 말해요. 나는 지금 이 세상 끝내도 크게 여한이 없는 순간을 살았으면 좋겠다. 늘 노래처럼 말하는데, 그렇게 아침마다 스스로에게 물어요. ‘지금 눈 감아도 괜찮아? 응, 괜찮아.’ 이렇게 답이 그냥 나와요.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대승기신론(62) - 2013년 7월 9일 강의

월인 (越因)

진리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배움을 찾아다녀야 합니다. 맨 처음에는 스승에게 말로 배웁니다. 두 번째는 스승 곁에서 말없이 배웁니다. 굳이 말이 필요 없는 거죠. 세 번째는 모든 만물이 말을 걸어와 배웁니다. 네 번째는 만물의 말도 필요 없고 그냥 배워잡니다. 추구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흐름은 이렇습니다. 훈습지력(熏習之力)은 자신의 본질에 대한 의문이 일어나서 생사의 고통을 떠나 열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인데, 이러한 마음의 인(因)이 있다 하여도 부처와 보살들, 또는 선한 지식을 가진 사람, 즉 선사들을 만나서 연(緣)을 삼지 못하면 뜻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부처나 보살, 선지식(善知識)은 본각(本覺)이 현상으로 드러난 모습을 말합니다. 말이나 행동, 느낌 등으로 본각(本覺)을 드러내 보여주는 사람들이죠. 그것이 처음에는 사람의 모습일 수 있지만 나중에는 자연일 수 있고, 무생물일 수도 있습니다. 대혜종고 선사 같은 사람은 기왓장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서 깨달았다고 하니 그에게는 기왓장이 스승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은 끊임없이 화두를 들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아무 기초도 없이 처음부터 화두를 든다는 것은 사실 무모한 거예요. 지금 말한 기초란 자신의 감정을 다루는 일을 의미합니다. 감정적 흔들림에서 떠나 진리 자체에 초점을 맞출 수 있을 때 비로소 화두를 드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두를 줄 필요도 없어요. 화두는 스스로 만나는 거지, 누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점차 갈수록 만물이 다 스승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말하는 부처나 보살, 선지식이 꼭 사람만을 말하는 것은 아닌데, 그들을 연(緣)으로 삼아서 힌트를 얻어야 합니다. 밖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화두를 통해 자신에게 통찰을 주는 것입니다. 화두, 즉 주제를 갖고 있지 않으면, 다시 말해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밖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통찰로 와 닿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추구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화두입니다. 목적을 갖고서 어딘가로 흐르는 에너지가 있지만, 어딘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는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람들이 공부를 시작합니다. 순수한 궁금함을 가진 사람들은 일찍 시작하기도 합니다만, 대부분 삶이 힘들어서 괴로움을 없애려고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점차 그 괴로움이 작아지면 거기서 멈추는 사람이 있고, 그러다 다시 걸리는 일이 생기면 돌아오기도 하고 그러죠.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 좀 편안해지면 호기심이 생깁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게 것이 뭘까? 도대체 정말 이런 것이 있는 걸까? 정말 그렇다면 신기한데.” 이렇게 순수한 궁금증이 생겨서 에너지를 쏟을 수 있다면 그는 이제 제대로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연(緣)이 생겨난 겁니다. 연(緣)을 삼지 못하면 능히 번뇌를 끊고 스스로 열반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으니 연(緣)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인(因)만 있어서는 안 돼요. 보통은 인(因)도 잘 없습니다. 처음에는 괴로워서 인(因)이 생기는데, 괴로움이 떨어져 나가도 인(因)이 그대로 유지되는 사람만이 끝까지 가게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인(因)만 가지고서는 안되고 연(緣)이 꼭 필요합니다.

사실은 인(因) 이전에 누구에게나 본질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 본질이 가려져 생겨나는 불편함과 괴로움 때문에 본질을 찾는 일에 들어서는 것을 인(因)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본질을 찾는 길로 가지 않고 괴로움을 다르게 해석하거나 임시적으로 해소하는 데 그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사람 안에는 인(因)이 없는 것입니다. 본질을 찾으려는 마음은 여러 가지 현상에 의해서 생겨납니다. 민감한 사람의 경우에는 자신과 아무 상관없는 노인의 죽음을 보며 “결국 나도 죽게 되는가?”하는 생각을 일으킨 것이 인(因)이 됩니다. “누구나 다 죽으니 결국 나도 죽겠지.”하고 당연히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석가모니의 경우처럼 죽고 싶지 않은 마음에 길을 떠나 연(緣)을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갖춰져 있는 것은, 자기 안에 있는 스스로 찾아야 될 본질입니다. 모든 중생에게 진여(眞如)가 있다고 했지, 인(因)이 있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인(因)은 생겨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살면서 부딪히기 때문에 그 부딪힘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로 인해 생기는 아픔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넓게 보면 누구나 인(因)을 갖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 직접적인 추구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일시적인 해소에 초점이 맞춰지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뿐입니다.

若雖有外緣之力，而內淨法未有熏習力者，亦不能究竟厭生死苦樂求涅槃。
 약수유외연지력, 이내정법미유훈습력자, 역불능구경염생사고요구열반.

만약 외연(外緣)의 힘이 있으나 안으로 인(因)의 정법(淨法)이 아직 훈습의 힘을 갖지 못한 사람이
 라면 결국 생사의 고통을 싫어하고 열반을 즐겨 구할 수 없을 것이다.

외연(外緣)의 힘이 있다는 것은 배움을 얻기 위해 스승을 찾아다닌다는 의미입니다. 인(因)의 정법
 (淨法)이 아직 훈습의 힘을 갖지 못한 사람이란 내면에 진정으로 자기의 본질을 찾으려는 명확한
 마음이 아직 생겨나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내면의 추구하는 힘이 훈습력, 즉 본질이 물든 마
 음을 깨끗하게 하고자 하는 힘이고 본질을 찾는 마음입니다. 이게 바로 정법훈습력(淨法熏習力)인
 데, 이것이 내면에 없으면 아무리 외적으로 스승을 찾아다니고 배워도 결국 깨달음이 일어나지 않
 습니다. 즉, 감정을 가라앉히려 하거나, 평화로운 마음을 추구하거나, 황홀경을 경험하려 하는 등
 의 경험적인 추구에 머물 뿐, 근본에 대한 갈증이 아직 분명하지 않으면 스승을 만나도 그냥 지나
 치게 됩니다. 그래서 준비된 사람에게 스승이 찾아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若因緣具足者，所謂自有熏習之力，又爲諸佛菩薩等慈悲願護故，能起厭苦之心，信有涅槃，修習善
 根。以修善根成熟故，則值諸佛菩薩示教利喜，乃能進趣向涅槃道。
 약인연구족자, 소위자유훈습지력, 우위제불보살등자비원호고, 능기염고지심, 신유열반, 수습선
 근. 이수선근성숙고, 즉치제불보살시교리희, 내능진취향열반도.

만약 인연(因緣)이 구족(具足)한 사람이라면 스스로 훈습하는 힘이 있고, 모든 부처, 보살 등의 자
 비와 원호함을 받기 때문에 능히 생사의 고통을 싫어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열반을 신뢰하여 선근
 (善根)을 닦아 익히며, 선근을 닦는 일이 성숙하기 때문에 모든 부처와 보살의 가르쳐 중생을 이롭
 게 하고 기쁘게 함을 만나 차츰 일을 이루어 나아가 열반의 도(道)에 향할 수 있다.

추구하는 내부의 힘도 있고 외부의 스승도 만나서 인연(因緣)이 다 갖추진 사람이라면, 다시 말해
 내적인 갈증도 있고, 스승의 말을 알아들을 지혜와 열정이 갖추진 사람이라면, 서서히 그 사람 안
 에 있는 본질이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은 스승이 알아보게 됩니다. 스승도 그 길을 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빛을 발하는 사람, 열정을 갖추고 끝까지 가려는 사람이 사랑스럽습니다. 부
 처나 보살 등은 저절로 그런 이들에게 끌려서 자비로운 마음을 베풀고 보호해 주고, 그들이 원하
 는 바를 이루도록 해 주려는 마음을 쏟아 붓게 되는데 이게 바로 스승이 알아서 다가온다는 것입
 니다.

원문을 보면 ‘능히’ 고통을 싫어하는 마음을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누구나 고통을 싫어할 것 같은
 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의미죠. 고통이 생겨나면 근본적인 고통을 해결하려는 마음이 염고
 지심(厭苦之心)이에요. 그냥 일시적으로 아픔을 잊어버리기 위해 기분 좋은 쾌락을 쫓는 것은 염
 고지심(厭苦之心)이 아닙니다. 그건 고통을 정말로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금 있으
 면 고통이 다가올 걸 뻔히 알면서도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영화 매트릭스에서 “내가 먹는 것이 다
 가짜라는 걸 알지만 그래도 이걸 먹는 것이 좋아.”라는 대사가 나오는데 그것과 비슷하죠. 고통이
 있는데 본질을 찾고 싶지는 않은 겁니다. 불경에 낭떠러지 위의 나뭇가지에 매달린 사람의 비유
 가 있습니다. 흰쥐와 검은 쥐가 한 번씩 그 나무를 잡아 먹고 있는데, 이 사람은 잠시 후면 나뭇가
 지가 부러져 천 길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질 처지를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나무에서 떨어지는 꿀을
 받아먹으며 좋아하고 있어요. 곧 낭떠러지로 떨어져 온 몸이 산산 조각나는 고통을 겪을 것을 알
 고는 있지만 당장의 쾌락으로 그것은 잊어버리고 지금 입 속에 떨어지는 꿀을 더 좋아하는 것입니
 다. 이것은 고통을 진정으로 싫어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염고지심(厭苦之心)이 없는 사람입니다.
 생사의 고통을 싫어하고 열반을 좋아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고통을 싫
 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길 것 같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지 않아요. 남한테 화내고 짜증내
 면 그 상대에게도 좋을 것이 없지만 그런 행위는 우선 자기를 괴롭게 합니다. 더군다나 분노의 대

상이 앞에 있는 것도 아닌데 화를 내는 건 자기만 괴로운 거죠. 자기가 괴롭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화를 내는 겁니다. “너는 왜 그런 쓸데없는 것에 괴로워 해?”라고 하면 “너는 사람 같지 않다. 사람은 다 이런 일에 괴로워하고 화내는 거지.”라고 반응합니다. ‘능히’를 붙인 것은 이렇게 진정으로 고통을 싫어하는 마음도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습선근(修習善根)은 선근을 닦아 익힌다는 의미입니다. 열반을 신뢰하고 선근을 닦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지루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죠. 그렇지만 열반이 있다는 것을 깊이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근(善根)을 닦는 것도 성숙해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똑같이 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똑같이 되지도 않아요. 연습을 하고 살펴다보면 마음이 민감해지고 섬세해지고 미묘해져서 보이지 않던 것도 보이고, 느끼지 못하던 것도 느껴져서 점차 성숙해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성숙해져도 본질을 발견하는 것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해야 돼요. 지금 우리는 생멸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행을 하면 성숙하고 발전해서 희노애락(喜怒哀樂)의 마음이 점차 열어지고 사라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수행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본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본질은 ‘발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질은 수련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발견’과 ‘발전’의 차이입니다. 모든 수련은 발전을 일으키지만, 크게 발전했다고 해서 본질을 발견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수련을 하지 않은 사람이나 수련을 적게 한 사람도 본질에 초점이 맞춰지면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돈오(頓悟)의 놀라운 점입니다. 그래서 돈오(頓悟)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수련을 하지 말라고 하죠. 수련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나는 아직 깨닫지 못했어.”를 되뇌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나는 아직 본질이 아니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수련을 통해 마음이 미세해지고 섬세해질수록 점차 괴로움과 어려움, 현상에 휘둘리는 건 줄어들기 때문에 발전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점수(漸修)입니다. 선근(善根)을 닦는 일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바로 이런 발전을 말합니다.

선근(善根)을 닦는 일이 성숙해지면 부처와 보살의 가르침을 만나게 됩니다. 스스로 애쓰고 닦고 있으면 스승의 가르침과 원호(願護)가 더 다가오게 되어 있어서, 그를 통해 중생은 점차 열반으로 나아갑니다. ‘중생이 열반으로 나아간다.’는 말에는 사실 오류가 있습니다. 중생과 열반이라는 것이 따로 없잖아요. 중생과 열반이라는 것이 있어서 중생이 열반을 향해 나아간다고 믿고 있는 한은 아직 분별 속에 즉 현상 속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대승기신론을 배우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생사를 떠나 열반으로 가려는 열정과 패기를 불러 일으켜야죠. 그런 다음 마지막에 가까이 다가갔을 때 “그간 네가 열심히 했지만 그런 식으로 본질을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본질이라는 것은 분별하고 나누는 그 개념을 떠나는 건데, 아직도 그러고 있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